

누문과 석교

御楼門と石橋

Goromon Gate and the Stone Brid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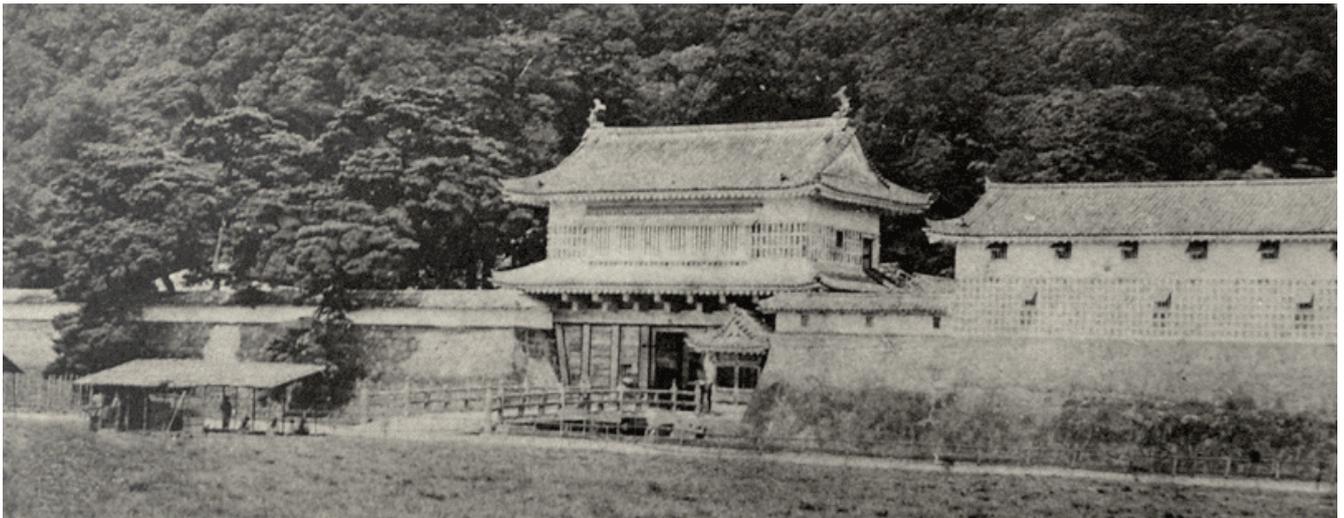
楼門和石桥

樓門和石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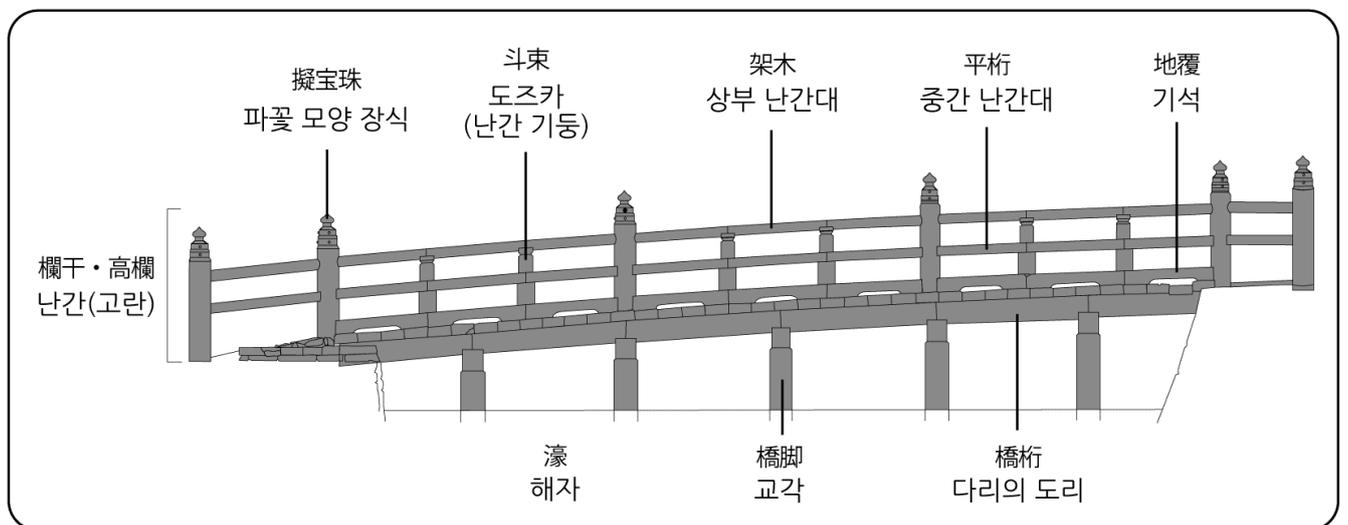
가고시마 (쓰루마루) 성 정면 현관이며 성의 상징인 누문은 남아있는 낡은 사진의 해석이나 현존하는 초석에 남은 흔적 등으로 볼 때 이중 2층 구조 • 목조 본기와 지붕에 사치호코를 올리고 이 사치호코까지의 높이가 약 20m(추정)나 되는 국내 최대급의 성문입니다.

주위에는 당시의 초석 (큰 것은 약 1.2m × 약 1m)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그 표면에서는 기둥에 감긴 쇠붙이의 녹빛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이로부터 기둥의 굵기는 약 90cm × 약 70cm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그 앞에 걸린 다리는 처음에는 판교였지만, 분카 7(1810)년에 사쓰마 번에서 막부에 간청을 올려 석교로 바꿔 건축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. 난간의 파꽃 모양 장식은 가고시마 성 아래에 있던 신바시 다리 • 니시다바시 다리와 함께 당금 (청동, 주석과 구리 합금)으로 제조되어 “게이초 17년 임자 6월 길일”이라고 각인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



▲메이지 5(1872)년에 촬영한 누문과 석교



▲ 석교 구조 모식도